

데이터 요금제 두달 음성통화 부쩍 늘었다

가입자 500만명 육박 2개월만에 10% 증가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고 음성통화 이용이 전반적으로 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일제히 유·무선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풀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선보인 이래 음성통화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한 관계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한 지 아직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의미 있는 변화를 분석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음성통화가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후 음성 통화나 데이터 사용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확히 분석하려면 다음달 정도나 돼야 할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도 “아무래도 유·무선 음성통화가 무제한으로 풀렸으니 과거보다 통화량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유무선 음성 통화 무제한 혜택을 주면서 그룹 통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2013년 선보인 그룹 통화 서비스인 ‘T그룹on’ 이용 고객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T그룹on’을 이용한 그룹통화 건수는 1490여 건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이전인 지난 4월의 1350여 건보다 약 10% 늘었다. 평균 그룹통화 시간도 31분으로 4월의 28분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밴드 데이터 요금제 출시로 그룹통화를 무료로 할 수 있게 되며 ‘T그룹on’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다”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통화의 새로운 기능이 재조명되고 있는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업계의 예상대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이후 소비자들의 음성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이동통신사들의 수익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음성통화가 늘면 망의 통화는 상대 사업자에게



KT ‘약정없는 LTE USIM 17’ 요금제 출시

KT M모바일이 최근 약정 기간 없이 유심만 구입해 단말기에 끼우면 즉시 이용 가능한 ‘약정없는 LTE USIM 17’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월 1만7000원(이하 부가세 별도)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100분, 문자 100건을 제공한다. 올레 와이파이 서비스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KT 제공〉

접속료를 줘야 해 이통사로서는 일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결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데이터 이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기에 음성통화 증가에 따른 수익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초순 KT가 업계 최초로 데이터 중심 요

KT M모바일이 최근 약정 기간 없이 유심만 구입해 단말기에 끼우면 즉시 이용 가능한

‘약정없는 LTE USIM 17’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월 1만7000원(이하 부가세 별도)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 100분, 문자 100건을 제공한다. 올레 와이파이 서비스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제를 내놓은 지 2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수는 500만명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는 250만 명, KT는 132만 명, LG유플러스는 103만 명으로 이동통신 3사 합계 가입자 수가 485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가을대전’ 누가 웃나

■삼성 갤럭시노트5

독일 가전박람회 출시 예정
화면 키우고 S펜 업그레이드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 가을 또다시 프리미엄 스마트폰(갤럭시노트5·아이폰6S)을 앞세워 한판 대결을 벌인다.

매년 하반기에 나오는 갤럭시노트와 아이폰 S 시리즈를 즐겨 쓰는 스마트폰 사용자 비중도 꽤 큰 만큼 이번 맞대결은 양사의 4분기에는 물론 내년 1분기 실적에까지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삼성으로선 지난 4월 아쉽게 준비해 내놓은 갤럭시S6 시리즈의 성적이 신통치 않음은 만큼 갤럭시노트5에 거는 기대가 크다. 삼성은 지난해에도 갤럭시S5의 흥행 부진을 갤럭시노트4가 그나마 매워주면서 한숨을 돌린 바 있다.

애플은 아이폰6 시리즈의 열풍을 계속 이어 가겠다는 포부다. 아이폰6 시리즈는 지난해 애플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안겨준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인기를 이어가며 효과 노릇을 톡톡히 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삼성은 갤럭시노트5, 애플은 아이폰6S를 전격 공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차례로 출시할 계획이다.

삼성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매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국제가전박람회)에서 공개해 온 만큼 올해도 IFA(9월4일~9일·현지시간)에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출시 시점이 8월로 앞당겨 질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같은 대화면을 장착한

■애플 아이폰6S

새 기능 ‘포스터치’ 장착
뒤쳐진 카메라 화소 개선

아이폰6S플러스보다 한달 일찍 선보여 시장을 확실히 선점하려 한다는 것이다.

갤럭시노트는 갤럭시S 시리즈보다 화면이 큰 것이 특징인데 해외 IT 매체들은 이번엔 아이폰6S의 화면 크기가 전작 갤럭시노트4 보다 0.2인치 커진 5.9인치(가로)로 내다본다. 그러나 갤럭시노트5(5.5인치)에서 3로 넘어갈 때처럼 화면 크기를 그대로 둘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5.9인치까지 키우게 되면 사실상 태블릿 수준이 돼 스마트폰 고유의 가치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은 S펜 기능이 보다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반면 애플은 갤럭시노트5보다 다소 늦은 9월 중순에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를 공개할 것으로 점쳐진다. 전통적으로 아이폰S 모델은 디자인은 그대로 가져가되 성능을 대폭 개선하는 쪽으로 무게를 뒀기 때문에 아이폰6S 시리즈 역시 아이폰6와 화면 크기나 디자인 등 외관은 같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아이폰6S 시리즈가 새로 선보일 기능으로는 ‘포스터치(Force Touch)’가 유력하다. 포스터치란 말 그대로 화면을 세게 누르는 신호를 보내면 이를 특정 명령으로 인식해 작동하는 기능이다. 이미 지난 4월 출시된 애플워치에 적용된 기술이기도 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금주의 추천앱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탐사선인 뉴호라이즌스가 항해를 시작한 지 9년 6개월 만에 명왕성에 가장 가깝게 다가섰다. 미지의 영역이었던 명왕성의 많은 부분을 연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우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은 우주와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앱을 소개한다.

별자리표/ESCAPE VELOCITY LIMITED /아이폰, 안드로이드

GPS 기술과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과 행성의 위치를 알려준다.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단말기를 이동시키면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위치 주변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 있다.



Solar Walk / Vito Technology /아이폰, 안드로이드

3차원의 태양계 시공간을 이동하여 모든 행성을 자세히 관찰하는 앱이다. 궤도, 내부구조, 탐사 역사 등을 제공하며 교육용 영상과 3D 안경을 이용해 볼 수 있는 태양계 자료도 제공한다.



NASA App / NASA / 아이폰, 안드로이드

NASA가 제공하는 이미지와 비디오, 최신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 앱이다. 매일 올라오는 1만4000개 이상의 사진과 생생한 뉴스를 빠르게 접할 수 있으며 NASA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방송도 경취할 수 있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소
ZOOS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유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가격이 이달부터 10% 인상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1일, 애플은 9일부터 앱 판매 가격을 10%씩 인상하고 사전에 개발자들에게 이런 내용을 안내했다. 이는 두 업체에 대한 정부의 과세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앱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시

구글·애플 앱 가격 이달부터 10% 인상

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세법에 따라 서버를 해외에 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해외 개발자의 앱에는 별도의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이 때문

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국내 오픈마켓이나 해외 오픈마켓의 국내 개발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앱에 매겨진 부가가치세는 개발자나 오픈마켓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앱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일부 개발자들은 부가세만큼 본인의 이익을 줄여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구글플레이의 경우 10%씩 인상된 가격을 추후 개발자가 조정할 수 있다.

/연합뉴스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사우나)

안보회관 앞
(구호전 사거리)

- 유동인구 많음
- 인테리어 시공완료

사우나 직접운영시
(월수익 1,800만!!)

월수익 (950만)
매매가 (14억)
(보 2억 용 6억)

- ①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 2분 코너 (통20개) 1층상가(2개,룸18개)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용봉동 용봉지구 코너 (엘리베이터있음) 룸20개(1층상가2개,룸18개,주택1개) 매매가 1억

010-7384-7800
010-6670-9800

2층 상가건물 매매 (나주시 삼영동)

나주혁신도시 10분!
나주역, 나주시청 7분!

영산중, 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토205평, 건135평)

1층6칸(올임대), 2층(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가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4억
- ② 수원동 수원지구 4층중층 85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4억천
-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스 6층(13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5천만
- ④ 서구 생촌동 대원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스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스 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 ⑦ 광양 상아이비트 15평 (상가입장지역) 매매가 4천만
-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5천500만

010-6832-9700
010-7384-7800

법원경매

- ###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1.북구 본촌동 (토 177평, 건199평)감평가 13억8천→최저가 7억7천(식당)
 - 2.광안구 월계동(토42㎡, 건135㎡)감평가 2억→최저가 1억4천(점단상가)
 - 3.서구 차평동 (토44.77㎡, 건257.71㎡)감평가 6억1천→최저가 4억3천
 - 4.광안구 생암동(토99평, 건239평)감평가 2억5천→최저가 1억4천
 - 5.동구 금동 (토19평, 건149평)감평가 5억1천→최저가 1억4천6백(9층수영장)
 - 6.동구 금동 (토19평, 건 134평)감평가 4억7천→최저가 1억7천(9층상가)

- ###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 1.서구 화평동(토150평, 건276평)감평가 12억→최저가 8억4천
 - 2.남구 주월동(토71㎡, 건180평)감평가 4억5천→최저가 4억5천
 - 3.서구 생촌동(토63평, 건148평)감평가 4억9천→최저가 4억9천

- ###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1.북구 운암동(토66평, 건193평)감평가 7억2천→최저가 7억2천
 - 2.동구 대인동(토802㎡, 건1992.57㎡)감평가 24억7천→최저가 14억
 - 3.북구 오야동(토 114평, 건199평)감평가 4억2천→최저가 4억2천
 - 4.광주 소촌동(토31평, 건556평)감평가 1억6천→최저가 1억6천
 - 5.광안구 남산동(토259평, 건150평)감평가 4억8천→최저가 4억8천
 - 6.서구생촌동(170평, 건97평)감평가 4억→최저가 3억2천
 - 7.북구 중흥동(120평, 530평)감평가 13억7천→최저가 7억7천

- ### 공점/모텔/주유소
- 1.광안구 정덕동(공점)토474평, 건478평)감평가 7억1천5백→최저가 7억1천5백
 - 2.전남 장성 북이면(토 2825평, 건1614평)감평가 41억→최저가 15억
 - 3.광안구 생암동(숙박시설) 토154평, 건419평)감평가 15억→최저가15억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추천 특수물건

- 1.동구 수기동(근린시설) (토130평, 건319평) (1층,청고, 숙박, 2층~3층, 소매점, 4~5층, 사무실) 감평가 10억7천→최저가 7억5천
- 2.북구 운암동 (근린시설) 토 160평, 건283평) 개발기회추천, 투자적합 (1층상가, 음식점, 사무실2~3층사우나) 감평가 8억5천→최저가 5억9천백
- 3.광안구 남산동(근린시설) (토285평, 건140평) (1층, 제조업, 냉동창고, 2층사무실, 연구실) 감평가 4억8천→최저가 4억8천
- 4.서구 화평동 (나이트) (토800평, 건2567평) 광안터미널앞 최고위차, 투자적합 감평가 97억 → 최저가 97억천
- 5.북구 운암동(근린시설)토66평, 건194평) (토66평, 건194평) (광안고 북측,5층건물) 감평가 7억2천→최저가7억2천

010-6670-98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획까지

원스톱강의

062-382-5500
010-6832-9700